

폭우에 만조까지...“막을 새도 없이 물바다” 망연자실

르포 - 200mm 폭우에 침수 피해 목포 석현동 가보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막을 새도 없이 다 잠겨버려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4일 오전 목포시 석현동 석현삼거리의 왕복 8차로 중 한 차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흉황을 전지였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193.4mm의 장마비가 내리면서 석현동 일대 상가들이 물에 잠겨 전정터를 방불케했다.

시간당 44.2mm의 비가 쏟아지자 석현동 일대의 도로로는 무릎까지 물이 차 올랐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오전 9시에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2시간이 더 지나 도로가 드러나자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상가 주인들이 침수를 입은 상가에서 굳은 표정으로 연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전자제품 가게에서 판매를 위해 밖에 내놓았던 세탁기는 빗속에 100m 넘게 떠내려 가버렸다. 사랍 키보다 큰 양문형 냉장고는 문 두개가 분리돼 인도 한가운데 놓여있기도 했다.

중고 전자제품 매매상점을 운영하는 최광춘(66)씨는 밤새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를 듣고 전날 밤 11시부터 가게를 지켰다.

최씨는 “뜬 눈으로 가게에 나와 밤을 새웠지만 실 새 없이 퍼붓는 비는 어찌할 수 없었다”면서 “아무리 퍼내도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없었고 가게 앞에 진열해둔 전자제품들이 하나 둘씩 떠내려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습에 나선 최씨는 지인과 함께 가게에서 물건들을 하나 둘 꺼내 말리기 시작했다. 전자제품 특성상 물에 잠기면 고쳐 팔 수도 없어 가게 안과 밖에 놓인 수십개의 전자제품을 모두 갖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흑사라도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씨는 고장 난 제품 위에 걸터앉아 멍하니 도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건너편 주유소도 상황은 비슷했다. 3년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 중인 박경조(45)씨는 쓰라린 주유소 간판을 세우고 아내와 양수기를 이용해 주유소

주유소 잠겨 기름저장고 물 새고

가게 밖 냉장고 빗속 떠내려가

“고장난 전자제품 장사 막막해”

주인들 밤새 피해 막기 안간힘

목포시 지정 침수취약지구인데

모래주머니도 없이 안일 대처 논란

내부에 들어찬 물을 빼내기 바빴다.

침수취약지구였던 석현동은 2년여 전에도 침수가 발생해 목포시에서 양수기를 설치해줬지만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씨는 전날 밤 10시에 퇴근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자정께 주유소에 다시 출근했지만 침수를 막지는 못했다. 가게에 설치된 3000만 원 상당의 주유기 세 대와 4000만 원 가량의 세탁기계 한 대가 물에 잠겨 전원이 켜지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기름 값 인상 소식에 가득 채워놓은 지하 기름저장고에도 물이 새 수송비와 정제비를 추가로 들이게 됐다. 기름 흡착포를 바닥에 깔고 뒤집 반복하던 박씨는 “앞으로 몇 주는 물론이고 이 장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발목부터 차 오르던 비가 계단을 넘어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오려 하자 물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를 막을 모래주머니를 찾지 못했다”면서 “몇 년전 침수가 발생한 곳에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설치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석현삼거리는 목포시에서 지정한 침수취약지구다. 목포시는 전날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래주머니조차 설치하지 않아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집중호우로 잠긴 목포시 석현동 주유소에 24일 오전 유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방수포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삼향천으로 모인 물이 인근 바다로 빠져야 하는데, 만조시기와 겹쳐 배수 시간이 지체된 탓”이라면서 “내년 중에 석현동 일대에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럽게 퍼붓는 비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석현동이 저지대인 탓에 침수되기 쉽고 구배(경사면의 기운 정도)가 적어 하천으로 물을 방류하기가 힘든 지형이라는 것이다. 목포시는 25일 오후까지 비가 예보된 만큼 비상근무와 펌프장 상시 가동으로 추가 피해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글·사진 김다인 기자 kdai@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아버지 수감되자 도박사이트 운영한 딸

광주지법, 징역 5년 선고...범죄수익 608억 추정명령도

아버지가 제작한 비트코인 기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어받아 운영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여·34)씨는 아버지가 2017년부터 1년 동안 태국에서 프로그래머를 동원해 제작한 새로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왔다.

이들 부녀가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형성되는 비트코인당 미국 달러화 환율을 가중평균해 자체적으로 만든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게 한 뒤 배팅을 통해 최대 100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경우 배팅한 수익금을 가져가지만 맞추지 못하면 수익은 이들 부녀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를 최대 7.5%까지 별도로 챙기면서 수익을 극대화 했다.

부녀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2만4613개(3932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박자금(증거금)으로 입금 받았다.

2019년 아버지가 태국경찰에 붙잡혀 송환됐지만 A씨는 이 사이트 운영을 2년여 동안 이어왔다. A씨 아버지는 2021년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A씨는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귀국해 비트코인을 언니의 남자친구들을 통해 환전했다. 총 17회에 걸쳐 176.42개

(51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환전해 은닉하거나 사용하다 경찰에 탐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A씨는 1일 거래량 제한 탓에 비트코인을 압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1476개(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은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이 빼돌린 비트코인 상당액인 608억원에 대한 추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운영한 사이트가 마진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는 사실상 우연에 기인 도박 공간에 불과하다”면서 “A씨는 사이트를 통해 4495개(입금된 비트코인의 약 18.62%)의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같은 수익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범행에 가담한 A씨 언니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우에 붕괴된 상가 2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빈 상가가 집중호우로 붕괴됐다. 광주시 동구는 건물이 50년 넘는 세월을 노후하면서 빗물이 벽체 등으로 스며들어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25일까지 건물 잔해를 철거하기로 했다. /나명주기자mjna@

관급계약 뇌물수수 혐의

김산 무안군수 불구속 송치

8억원대 무안군 관급 계약 수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이 김산 무안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안군청 4·5급 간부 등 다수 공무원과 선거검표 관계자, 뇌물을 준 관급자제 공급 사업자 등 9명도 함께 송치됐다.

김 군수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김 군수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뚝!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 | | |
|---------------------|---------------------|----------------------|------------------------|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
| 치평지점 062)381-8212~3 | 동림지점 062)513-852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쌍촌지점 062)381-655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배틀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 외정지점 062)372-0421~3 | 운천지점 062)371-2772~3 | 상동무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